

LG상사, 석유화학 해외투자 성공

석유화학 중심 수익구조 탄탄 ... 중국 종합물류사업 참여도 추진

LG상사가 3월26일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서 종합적인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LG상사 금병주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전자가 2004년 중국에서 1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문 즉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상사는 일단 그룹 계열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 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병주 사장은 “1-2%의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상품 수출대행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며 “해외 자원 개발과 플랜트 수출, 국내유통 등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 3-4개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원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도 많은 사업”이라며 “현재 가스공사 등과 함께 추진중인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수입 등 자원개발 및 플랜트 수주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르쿠츠크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2008-2010년이 되면 서해안을 통해 국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병주 사장은 또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와 케논 카메라 사업, 철강 사업 등에서 기본적으로 1000억원의 경상이익을 얻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 2004년 경상이익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일본 상사들을 그대로 본뜬 종합상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공모 등을 통해 회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3/30>